

은행 독과점 깨지나... 인가 세분화·챌린저 은행 추진

‘돈잔치’ 비판에 제도 개선 TF 출범... 경영진 보수·성과급 환수 등 검토 금리체계 개선·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 은행 활성화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스몰 라이선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과 관련해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감시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생·손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

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

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이 국민의 금융 편익 제고와 실물경제 자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제경쟁력도 높이는 노력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이 국민과 사회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TF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인가 세분화 및 챌린저 बैं크 등은 은행권 진입 정책을 검토하고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융합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세분화는 단일 인가 형태의 은행의 인가 단위를 낮춰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에 경

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챌린저 बैं크는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방식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신설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을 말한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 및 삭감(Claw-back·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손실흡수 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경기대응안충자본 적

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 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업계 등 사실상 금융권이 참석해 은행을 중심으로 경쟁, 영업 관행,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업계도 따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금감원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고물가에 취업난’ 경제고통지수 역대 최고

김희재 의원 통계청 자료 1월 8.8... 전남, 9.7로 전국 상위권

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경제고통지수는 전국 광역시·도 중 상위권을 웃돌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9.7로 강원(13.2)과 인천(9.9)에 이어 상위권에 들었다.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비싸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경남(9.7), 충북·대구(9.6), 울산

(9.4), 충남(9.0), 경북(8.9), 전북(8.7), 부산·서울(8.5), 대전(8.4), 제주(8.1), 경기·광주(7.9) 순이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쿠인이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 구한다.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5.2%로 1.6%포인트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1.1포인트 상승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0년 1월(8.5)이었는데 당시엔 실업률이 5.0%로 물가 상승률(3.5%)보다 높았다.

전체 월간 경제고통지수를 통틀어 보면 작년 7월(9.2)이 가장 높고, 이어 2001년 2·3월(각 9.1), 2022년 6월·2008년 7월·2001년 5월(각 9.0), 2001년 4월(8.9) 순이었다.

통상 1월은 다른 때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고등·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시기이고, 겨울철에는 건설 현장 일감도 줄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경기가 특히 나쁘다. 또 최근엔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일자리까지 구하기 힘들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2.5%)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2개월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웃돌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1일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왼쪽 세번째) 임직원들이 '3행 3무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청렴·소통·배려하고 사고·갑질·성희롱 근절

농협 광주본부 3행 3무 실천 대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21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농협 전 임직원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항목과 근절해야 할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범 농협 '3행 3무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농협은 2023년을 청렴농협 구현 실천의 해로 선정하고 임직원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3행(청렴, 소통, 배려)과 근절해야 할 3무(사고, 갑질, 성희롱)를 정해 청렴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3행 3무 실천운동 결의를

시작으로 임직원 교육 확대, 3무 위반행위(사고, 갑질, 성희롱)에 대한 집중점검, 우수사례 공유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성신 본부장은 “범농협 임직원 모두가 3행 3무 실천운동을 생활화하여 사전·사고예방과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국민·농업인·임직원 모두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깨끗한 청렴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기술·일반직 공채

차체부 등 38명 선발...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2023년 1차 일반직 및 기술직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보충과 전기차 기반구축(AX·EV) 조기 안정화를 위한 인력지원에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직 29명과 일반직 9명(경력사원 4명 포함) 등 모두 38명을 공개 채용한다.

대규모 정기 공개채용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시 공개채용 방식의 하나로 차체부, 도장부 조립부, 보전부, 시설관리부 등 기술직과 일반직, 장애인 제한경쟁과 보존 분야 제한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23일부터 다음 달 7일 오후 4시까지이다. 지원서 최종 제출 마감 다음 날인 8일 오후 4시까지 인공지능(AI) 역량 평가를 꼭 완료해야 한

다.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건강검진 등을 거쳐 3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사 예정일은 4월 중순이다.

특히 이번 채용도 신채제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재산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채용기관의 업무 대행과 AI 역량 평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적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ESG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의견 수렴

㈜해양에너지는 최근 전남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제7차 ESG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에너지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사회공헌활동 및 윤리경영 실천 방향을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위원회는 당원위원장인 회사 경영진과 위촉위원인 기관·학계·시민단체·재계·법조계·언론 등 외부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해양에너지 10대뉴스 공유, 2022년 ESG 경영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그리고 2023년 ESG위원회 운영계획과 회사 발전 방향 제안 및 자유토론 순으로 됐다. 특히 2023년 ESG 경영 추진계획 중 Net-Zero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계획, 그리고 GRESB 인증 추진계획과 관련해 깊은 논의를 나눴다. /김민석 기자 mskim@

20대 알바생, 월평균 67만원 번다

알바몬 2844명 조사...매장관리·주 2일 근무 가장 많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알바생'들은 한 달 평균 67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0대 2844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무자의 소득 및 근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2004명의 한 달 평균 소득은 6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근무 기간은 일주일 중 '2일' 정도 일한다는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일(21.0%), 3일(20.5%) 순이었다.

알바를 하는 날 근무하는 시간은 '약 5시간' 정도가 28.3%로, 이어 '약 4시간'이 18.5%였다.

20대가 가장 많이 하는 알바 직무는 '매장관리·판매'로 전체 응답자의 42.6%에 달했다. 이어 '카페·바리스타' (28.8%), '서빙·주방보조' (27.9%) 순이었다.

현재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무와 근무 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현재 알바 직무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89.2%에 달했고, '근무하는 업체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87.8% 수준이었다. 알바 급여 수준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79.4%로 나타났다.

20대 알바 근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었다.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한다는 응답자가 81.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진로를 찾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알바를 한다는 응답도 40.5% 수준이었다. 이외 '학비, 등록금 마련' (24.3%), '학원비, 구직활동비 마련' 이 뒤를 이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기술 보유 청년, 생애 첫 창업 도전 지원

중기부 다음달 15일까지 모집...제작·마케팅 등 전 과정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는 만 29세 이하 청년 대상의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2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에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 창업 분야에 도전하며 창업 경험이 없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120명(팀)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팀 단위로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초기 사업화자금을 평균 5000만원 지원하며 기업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세무·회계·법률 등 창업 기초교육과 창업·경영·기

술 분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오는 23일부터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981개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동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임택(왼쪽) 광주 동구청장과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21일 광주 동구청,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12억원의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시 동구에서 사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동구에서 5.0%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고, 광주은행은 최대 1.0%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감면한다.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7.68 (-41.28)
↓ 코스닥	778.51 (-14.91)
↑ 금리(국고채 3년)	3.645 (+0.022)
↑ 환율(USD)	1304.90 (+9.00)